

# 전남 친환경농산물 4년새 반토막 ... 고사 위기

생산·유통구조 고비용에 신뢰도 하락 주원인

김영란법 시행뎨 선물용 판로 더 위축 될 듯

‘농도(農道)’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최근 4년사이에 반토막 났다. 6만호에 달하던 생산농가는 2만5000호로, 재배면적은 7만5000ha에서 3만6000ha로 감소했다.

생산·유통구조의 고비용 탓에 수익률이 떨어지는데다 소비자 신뢰도 하락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설상가상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선물용 친환경농산물 판로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친환경농산물 활성화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 관리정보시스템의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친환경농산물은 6만여 농가가 7만5142ha에서 46만t을 생산했다. 이 중 전남은 전체 재배면적의 48.5%인 3만6464ha에서 9만6002t(20.9%)을 생산했다. 생산농가는 2만5360호였다.

문제는 전남도가 ‘생명의 땅’을 내세우

며 친환경농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2012년 5만 9298호(유기 6153, 무농약 5만3145호)에서 2013년 5만6087호(4342, 5만1745), 2014년 3만211호(3138, 2만7073), 지난해 2만5360호(3241, 2만2119)로 42.8% 급감했다. 재배면적과 출하량은 더 떨어졌다.

2012년 7만5432ha에서 44만297t을 출하했던 전남 친환경농산물은 2013년 6만 7797ha 26만4732t, 2014년 4만705ha 10만 8750t으로 줄었다가 급기야 지난해에는 10만t 이하(3만6464ha 9만6002t)로 줄어 들었다. 최근 4년사이에 48.3%가 축소된 것이다.

생산효율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국내 재배면적의 절반에 육박한

친환경농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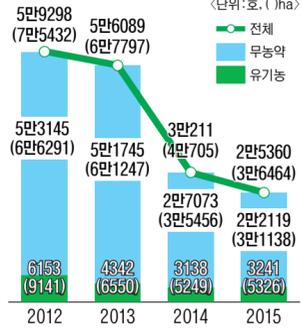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로 분류된다. 유기농산물은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것이며, 무농약농산물은 농약을 뿌리지 않고 화학비료만 권장량의 3분의 1 이하로 쓴 것이다. 작물을 기르는 토양에 대해 중금속 잔류치 측정, 농약성분 잔류치 측정, 유해물질 수질검사 등 세 가지를 통과해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데 비해 농산물 출하량은 전체의 20%에 그치고 있다. 재배면적 1ha당 전국 평균 출하량은 6.1t에 달하지만 전남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2.7t에 그쳤다. 그만큼 생산효율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이 줄면서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국내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18.8% 줄어든 1조2718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유기식품은 증가 추세다. 전체 수입식품 중 유기식품 수입액은 2009년 2990만달러에서 2013년 5400만 달러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전남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면적 실적



정חק군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08년 이후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 단체인증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가 강화되면서 인증 농가와 면적이 감소했다”며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자전거로 700km ... 통일대장정 발대식

8일 광주시의회앞에서 열린 ‘PEACE ROAD 2016 광주전남 통일대장정 발대식’에서 참가자들이 출발에 앞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부산~파주 임진각까지 16일 동안 자전거로 700km를 중주하는 이들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문화전당까지 달리며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실현을 기원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지역 모든 경로당 이달까지 에어컨 설치

시, 내년부터 전기료 지원금 인상 검토

광주지역 모든 경로당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광주시는 8일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 68곳에 사업비 1억1300여만원을 긴급 지원해 이달 중순까지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최근 광주지역 경로당 1297곳

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68곳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윤장현 광주시장은 “폭염 속에 어르신들이 힘든 여름을 나지 않도록 서둘러 에어컨 설치를 마무리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에어컨 미 설치 경로당은 소규모이거나

경로당 측이 에어컨 설치 대신 TV나 김치냉장고를 선호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이와함께 전기료 부담으로 냉방기가동을 주저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료 지원금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로당 전기료 지원은 7~8월, 각 5만원씩 모두 10만원이 지원된다.

무더위부터 저지된 경로당 662곳은 2개월 기준으로 1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와는 별도로 난방비는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5개월 간 월 35만원씩 지원된다.

하지만 전기료 지원이 무더위 쉼터 경로당이더라도 혹서기 기준 월 10만원 수준이어서 누진료 등을 감안하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에어컨 설치 지원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하지만 내년 지원사업을 서둘러 당긴 것”이라며 “폭염에 어려움이 큰 어르신을 배려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8, 해질 19:28, 달출 11:35, 달짐 23:07

소나기 피하세요!

가끔 구름 많고 대기불안정으로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소나기	25/35	보성	구름많음	24/33
목포	구름많음	25/35	순천	구름많음	26/35
여수	소나기	24/35	영광	구름많음	24/34
나주	소나기	24/35	진도	구름많음	25/33
완도	구름많음	25/33	전주	소나기	25/33
구례	소나기	24/35	군산	소나기	25/32
강진	구름많음	24/33	남원	소나기	24/33
해남	구름많음	24/33	홍산도	구름많음	24/30
장성	구름많음	23/34			

◇바다 날씨

지역	면적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북~북동	0.5	북동~동	0.5
남해	남부	북~북동	0.5~1.5	북동~동	0.5~1.0
	남부(동)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서부	남부(서)	북동~동	1.0~1.5	북동~동	1.0~2.5
	남부(서)	북동~동	1.0~1.5	북동~동	1.0~2.5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6:48	18:30	11:18	23:31
여수	00:26	12:48	06:27	18:49

◇주간 날씨

10(수)	11(목)	12(금)	13(토)	14(일)	15(월)	16(화)
25/35	25/35	25/35	25/35	25/34	25/34	24/33

## ‘넥슨 뇌물수수’ 진경준 검사장 해임 확정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

넥슨 주식 등 9억5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의 해임이 확정됐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법무부는 8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울러 2014년 5월 검사에

대한 징계부기금 도입 이후 진 검사장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해 1015만원의 징계부기금 부과를 의결했다.

진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주식·자동차·해외 여행 경비 등 9억5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9일 구속기소됐다.

법무부 징계위는 후배 검사에 폭언·폭력을 한 비위로 진 검사장과 함께 해임이 청구된 김대현(48·연수원 27기) 부장검사의 징계 의결은 보류했다. /연합뉴스

## 전남도, 학교밖 청소년 잠복결핵 검사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잠복 결핵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결핵검사를 진행한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면역학적 검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이 몸 속에서 잠 자고 있는 상태로 환자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 또 몸 밖으로도 결핵균을 배출하지 않는 전염성이 없는 상태지만 면역력이 약해질 경우 발병될 수 있다. 잠복결핵 진단은 혈액을 이용해 결핵

특이항원인 인터페론 감마 분비를 알아보는 면역학적 검사로 가능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잠복 결핵 검사는 청소년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검사 비용은 무료다. 또 청소년 센터 이용객은 아닐지라도 검사를 받고 싶은 청소년이 있다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전두영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장은 “미래를 이룰 청소년들의 잠복결핵 검진을 통해 활동성 결핵을 예방, 결핵환자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레스**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 동림동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문의 **062 511-1141**

시행 |주|에|이|치|원    시공 |주|광|신|중|합|건|설

\* 본 홍보물이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였으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수변 교통시설 및 수변 현상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